



갤러리에 전시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서양식 직조기 앞에서 포즈를 취한 한선주 작가.

〈롯데갤러리 제공〉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타피스 트리다.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작품인 타피스트리는 직접 손을 사용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수공예 느낌이 나는데다 따뜻한 감성을 전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벽걸이 가리개 등 활용도도 높아 '원데이 클래스'도 많이 열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작품도 눈에 띈다.

광주 롯데백화점 롯데갤러리에서 열고 있는 한선주 교수(조선대 미술대학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부 섬유패션 전공)의 전시는 직접 손으로 짠, 따뜻한 느낌의 다양한 직조(織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사실, 전시회라면 보통 회화나 조각, 사진 작품전인 경우가 많아 지역에서 섬유 작품 전시를 만나는 기회는 드물다. 오는 28일까지 '#작·물·구·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주에서 16년만에 갖는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한 작가가 다양한 실로 직접 짠 고전적인 직조 작품부터 대나무, 커피 필터 등 자연과 생활에서 가져온 소재를 활용한 작품이 어우러졌다.

"사람들이 섬유가 주는 따뜻한 느낌과 무언가를 짜는 위빙(waving)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타피스트리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전 이번 전시에서 정통적인 섬유 공예작품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통을 통해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한선주 작가 '#작·물·구·조' 전 28일까지 롯데갤러리

다채로운 색실로 다양한 패턴 만들어

커피 필터 등 생활소재 활용

사용중인 서양식 직조기도 전시

대나무 활용 '담양의 흔적' 눈길

게 중요하거든요. 또 섬유 공예에도 다양한 작품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어요."

전시실에서 눈에 띄는 건 서양식 직조기다. 한 작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의 실로 직조하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오브제 역할도 한다.

가로 세로로 실을 넣어 짜는 직조 작품의 장점은 수천 수만가지의 경우의 수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클래식 연주자들이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고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해 음악을 연주하듯, 천을 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패턴과 색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경사와 위사가 엮이는 모습은 다양한 물감이 섞이는 모습같기도 하다.

"위사와 경사를 어떻게 직조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천을 짤 수 있는 거죠. 요즘 트로트가 재해석돼 많은 사랑을 받듯, 천을 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무한대로 패턴을 만들 수 있죠. 다양한 실과 다양한 소재를 다뤄보면서 저만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한 작가는 일반적인 실 뿐 아니라 열매, 줄기, 나뭇가지 등 자연에서 얻어온 다양한 것들도 작품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담양의 흔적'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강진 출신인 한 작가는 16년간 담양에서 작업했었고, 지난 2016년부터는 담양군 도시디자인학과 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담양의 가을 풍경을 나타내기 위해 황마와 메타세콰이어 나무에서 떨어진 집엽수 가지를 엮어 직조를 하고 시원한 여름 풍경은 린넨과 대나무 가지를 활용했다.

또 하나 독특한 작품은 커피 필터로 작업한 '변형' 시리즈다. 커피를 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필터를 활용한 작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했다. 이번에는 베틀 작업에서 활용하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북(날실 사이를 드나들며 씨실을 내보내는 기구) 속에 다양한 필터와 천 조각, 실을 넣어 소품을 제작했다. 자연스럽게 생긴 얼룩을 그대로 살려 사용하기도 하고, 먹 등 다양한 소재로 염색하기도 했다.

"섬유작품으로 따뜻한 감성 전하죠"



'Variation 5'

전시장 쇼윈도에 설치된 '봄날은 온다'는 다양한 분홍색 실을 활용해 제작한 설치 작품으로 시종에 나와 있는 실과 직접 염색한 실들을 활용해 제작했다.

한 작가는 유명한 진태욱 디자이너, 한혜자 디자이너가 패션쇼에서 사용할 의상의 원단을 직접 짜기도 하고, 제주 테디베어박물관과 협업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단으로 테디베어 의상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했었다. 또 지난해에는 공예 트렌드 페어 주제관 작가로 선정돼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아로마 향기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향낭도 제작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자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피스트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 작가는 '일반인들도 예술가'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제 작업에서는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모든 것들이 작업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티 라벨, 체리씨, 아보카도 씨앗 등을 모으는데 언제든 작품의 소재로 변신할 지도 모르겠네요. 정년 후에는 노인이나 아이들과 실을 직접 만지며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보고 싶어요"

1996년부터 조선대에 재직중인 한 작가는 서울·호주 등에서 1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5년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의 디자인' 전 큐레이터를 맡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서울옥션'과 손잡다

전남지역 시각예술분야 작가 작품
6월 온라인경매, 5월6일까지 공모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수도권 미술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출신 작가들을 위해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과 손잡았다.

서울옥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재단은 전남 출신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6월중 서울옥션 채널을 통해 온라인경매를 실시한다. 199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미술품 경매 회사인 서울옥션은 시장 점유율과 경매 기록에서 한국 미술 경매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1위 대표 기업이다. '제로베이스 in 전남'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경매 시작가가 모두 0원이며,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작가 작품에 대한 가격은 전적으로 구매자들이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서울옥션 제로베이스'는 총 3회 추진됐고 출품작 100% 낙찰됐다.

무엇보다 신진작가들의 작품이 미술시장 컬렉터들에게 노출되고 판매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업미술가 10만명 중 경매에서 거래되는 작가는 0.1%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은 난관이었다.

작가 모집은 13일부터 5월6일까지며 전남에 거주하거나 전남 출생 또는 전남 소재 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작품은 서울옥션 전문가가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작은 1·2차 프리뷰전시와 함께 서울옥션에서 온라인경매로 진행된다. 1차 프리뷰 전시는 도민들에게 선정 작품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도내에서 진행되며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2차 프리뷰전시와 온라인경매가 동시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아트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팀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이 미디어 아트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팀을 모집한다.

이번 체험형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미디어아트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며 미디어 아트를 아는 데 초점을 맞췄다.

희망 단체는 1회당 1시간 내외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총 10회 운영해야 하며 회당 최소 운영 인원은 20명이다. 운영팀 선정 시 프로그램 개발비 50만원과 진행 회차별 강사비는 별도 지급된다.

참가 희망자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1개 팀은 세부내용을 조율 후 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사업단은 2018년 12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호남·제주권 49개 기관 중 우수사례로 뽑혔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 연계형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창업 연계형 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50개 팀을 공개 모집한다.

진흥원은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의 하나로 '2020 G. 크리에이터 프로토타입 제작지원' 참여자를 온라인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미디어창작랩 20개 팀(~4월 14일 접수 마감), 웹툰창작작업 20개 팀(~17일), 융복합콘텐츠창작랩에서 10개 팀(~22일) 등 50개 팀을 뽑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

시가 지원한다.

선발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금이 주어지며 ▲마케팅·피칭 전략, 저작권법 등 맞춤형 멘토링 지원 ▲전문가 특강 ▲창작시설 및 장비 지원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홍보 마케팅 ▲콘텐츠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받는다.

우수 참여자는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사업과 연계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광주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지난해 서울옥션에서 진행한 '제로 베이스' 전 모습.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유산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